

즐거운 일터 업무능력 쑥쑥 소소한 재미 칼퇴근 권장 신풍조 확산



최근 포스코의 기업광고에서는 직원들 몰래 셔플댄스를 연습한 부장님이 사무실에서 짙은 직원들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광경이 나온다. '아는 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직원들과 소통하려는 부장님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다. 소통, 배려, 이해

의 미덕은 사회 변화의 트렌드와 맞물려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주중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직원들에게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춘지 선정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2년 연속 가장 일하고 싶은 최고의 직장으로 뽑힌 구글은 일찌감치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회사 내부시설과 본인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책상, 엄마에게 18주, 아빠에게 12주를 제공하는 육아휴직과 출산 후 세탁과 청소대행을 위한 5백 달러의 보너스, 25개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온갖 음식이 직원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무료로 제공되고,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는 물론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는 세탁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하키링크까지 거의 모든 운동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최근에 오픈한 댄스스튜디오에서는 30여개의 댄스교실이 운영된다고 한다.

브랜드 가치 직원이 먼저 공감해야

구글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기업들도 '즐거운 회사 만들기'에 노력 중이다. 한국코카콜라 휴게실에는 고급 안마의자가 설치돼 있다. 직원들은 업무 중간 피로감이 몰려올 땐 잠시 짬을 내 목척 마사지와 안마를 받는다. 과거에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야근을 하는 Business Planning 기간에는 직원들 휴게실 동안 마사지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상주해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직원들이 연례 휴가 기간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Live Positively 룸'을 설치했다.

또한 직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2008년 1월 1일부터 근무제도를 도입,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했다. 기존 9:00~5:00 근무제도가 개인이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실시해온 'Happy Friday'는 금요일 3시 이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직원 제복을 제공하는 제철 13일 연가 인기가 좋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Birthday Cake Coupon'을 지급해 오후 10시까지 케이크를 제공하며, 근무시간 중 번개처럼 진행되는 'Lightning Talk'은



있는 게임을 즐기며 직원들간 친목을 쌓는다. 이런 모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진행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MOVE!' 팀에서 주도한다. 'MOVE!'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구남주 부장은 "코카-콜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는 Happiness, Refreshment, Optimism이다.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공감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회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재미있고 특 특 튀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이 많다"고 전했다.

육상 놀이터, 스티커 사진기까지

직원들이 가족과 자기계발에 좀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KAA 이수지 기자 susie@kaa.or.kr



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이나 30분 일찍 퇴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선후배간 멘토 프로그램으로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높이는 회사도 있다. LG디스플레이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사내 스승인 '멘토의 날'로 정하고 감사를 전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런가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내 멘토를 찾고 싶다"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32명의 '쌤'을 선발, 직원 대상의 강연, 토론회,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쌤은 'Share your Skill And Moment(당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해상은 'Hi day'를 정해 임원과 직원이 함께 공연관람이나 호프를 즐기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현대상선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사내 탁구대회를 열어 직원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현대카드도 여의도 사옥 옥상에 모노레일을 설치, 직원들의 놀이터를 만드는가 하면,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웅진코웨이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내에 인형 뽑기 기계와 스티커 사진기를 설치,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직원들의 리프레시를 위한 투자는 근무집중도를 높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회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